

2. 무당이 죽은 사무엘을 진짜 불러냈는가?

사무엘상 28:7-14

다윗이 위험에 갇혀 있을 때 사울은 최후적인 고립과 몰락에 빠져 들어간다. 겉으로는 사울이 강하게 보이지만 그것은 사울의 외형적인 강함에 불과하다. 성경은 이미 사울의 패배와 무너짐을 알고 있었다.

1. 28장 3절의 기능

여기서는 이제부터 일어날 두 가지 중요한 전제를 알려준다. 사울이 이스라엘을 이방 관습에서 벗어나 정결하게 했다면, 이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열심에 어울리는 것이었다(14:3, 24, 33-35). 사무엘의 엄중한 신앙과 편협한 정치적 환상을 그대로 추종하면서(18:9-22과 비교) 사울은 자신의 영토에서 일상적인 종교적 조작행위, 예를 들면 신접자나 마녀들을 제거시킨 것이다(3).

율법에서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사형에 처했지만(레19:31, 20:6, 27, 신18:10-11), 이 사야 시대에도 그런 짓이 아주 버젓이 행해졌다(사 3:2-3, 8:19, 왕하 21:6, 23:24). 이 절은 독자에게 상황을 객관적으로 알리는 것도 되지만, 사울의 심정에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가를 나타낸다. 사울에게 있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아쉬웠던 사람은 자신에게 기름 부은 사무엘이었을 것인데, 안타깝게도 죽고 없었다. 그래서 찾은 엉뚱한 대안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탄압했던 신접한 자를 찾는 것이었다.

2.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울¹⁾(28:4-7)

1. 내용

사울이 당면한 상황은 이스라엘 평야 북쪽의 모래 언덕 위에 놓인 수넴에 진친 위풍당당한 블레셋 군대였다. 자신의 군대는 남쪽의 길보아산에 진치고 있었다. 사울은 스스로 확고한 여호와주의자인 것처럼 행동하려고 하였다. 그는 하나님께 인도와 확신을 추구하였다(6). 그렇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심으로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였다.

1) 신 18:10은 점치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레 19:31/20:6은 박수(신접한 자)를 찾는 걸 금하고 있다. 사울 자신도 점쟁이들과 신접한 자들을 이스라엘로부터 쫓아냈었다. 그러나 지금은 사울 자신이 신접한 자를 찾고 있다. 사울은 율법을 깨뜨리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을 하고 있다. 대상 10:13-14는 사울이 하나님께 인도함을 구하기보다 죽은 자의 영을 찾았기 때문에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겁에 질렸다(4-5).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계시를 주시지 않았다. 주관적으로 주어지는 꿈이나 선지자를 사용하지도 않았다. 제사장을 통해서 주시는 계시인 우림과 둠뭇을 통해서도 침묵하셨다(6).

사울은 점점 더 절망에 빠졌다. 이처럼 사울은 자신의 신앙이 아무런 확신을 주지 못하자 어디든 찾아간다(7). 겁에 질린 사울은 가냘픈 희망에 기대를 걸고, 신명기의 금지조항을 거스르고, 자신이 내린 칙령까지 거스르면서…。 그는 이방이 가진 계시의 수단인 신접한 자를 찾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였다. 엔돌은 블레셋이 진친 언덕의 동편에 위치하였는데 그곳에라도 찾아가는 모험을 감행한 것이다. 그의 결단은 그의 도덕적 소진과 그의 절망적인 신앙과 그의 실패한 삶을 가늠케 한다.

2. 잘못된 선택

사울이 택한 방법은 너무나 비정상적이었다.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에 대해서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명백한 하나님의 뜻(신 13:1-5, 18:9-14)을 거역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행동은 이미 이전에 그의 행위 속에서 그 씨앗이 발견된 것이고, 이제 그것이 극단적으로 나타났다. 사무엘상 13장에서 사울은 마음대로 제사했고,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정해서 수행하였다. 그것이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중요한 이유가 되었는데, 그 핵심은 제사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었다는 점이다(15:22-23).

3. 다윗의 선택(27장)과 비교

사울과 다윗의 엉뚱한 행동은 서로 상응한다. 즉 둘 다 극단적 위기 상황 속에서 적의 손에 자신을 맡겼다. 그러나 그 동기나 목적은 극단적으로 달랐다. 다윗은 언약의 하나님이 적진 속에서도 살아 계심을 확신한 가운데 적진 깊숙이 들어갔으나, 사울은 아무 확신도 없이 자신을 그 속에 던진 것이다. 그 결과도 달랐다. 다윗은 이런 확신 속에서 계속 적을 속이며 생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에게 속고, 사무엘의 영에 속으며 기진하게 되었다.

3. 사울이 죽은 사무엘의 혼백을 불러올림(28:8-14)

1. 내용

이것은 사울은 사실상 더 이상 왕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절정이다. 그

는 아무런 재원도 없는 단순한 미치광이에 불과하다. 사울은 위장하고 갔다(8). 사울은 자신이 금지하였던 것을 요청하였다. 그는 자아 분열된 자로서 부끄러운 모순성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인물이었다. 사울은 정통의 수호자이며, 왕위 파괴자이며, 무서운 거절로써 자신을 무너지게 하였던 바로 그 사람, “**사무엘을 불러올리라**”고 명령한다(11). 이제 사무엘이 모습을 드러냈다! 죽음에서까지 사무엘은 영향력을 행사한다. 사무엘은 모세 이후로 이스라엘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서 그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발휘한다.

2. 사무엘을 청한 이유

아마도 사무엘이 주관하는 현실 때문이었을 것이다. 사울에게는 고개를 돌릴 곳이 아무 데도 없었다. 기다리던 사무엘이 나타나자, 사울은 순종의 자세로 몸을 되돌린다. 그는 길게, 코가 땅에 닿도록 절한다(14: 13:10과 비교). 사무엘은 분명히 사울의 마지막 절망적인 희망이었는데, 사울은 다윗과 블레셋의 사이에 끼여서 현실 세계에서 전혀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다.

4. 사울에 대한 사무엘의 선언(28:15-19)

1. 내용

사울은 절망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모르나, 사무엘은 사울에게 엄히 책임을 추궁한다. 죽음의 상태에서도 사울을 도와주지 않았다(15). 사무엘의 대답은 제왕 같은 위엄찬 선언이었다(16-19). 사울은 궁지에 몰린 ‘묻는 자’이며, 사무엘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에 있다. 만일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신다면’ 사무엘도 등을 돌린다. 하나님과 사무엘 사이에는 어떠한 분열도 있을 수 없다. 사무엘은 그가 이전에 선포한 심판의 말씀을 되풀이할 뿐이다(15:19,23,28). 13:13-14까지 합치면, 사울은 이제 세 번째로 사무엘의 입에서 그의 왕권을 심판하는 말씀을 듣는 셈이다.

2. 유죄판결 이유

이제 사울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다(18-19, 15:19과 비교).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듣지 않았다. 그때 진멸하지 않았던 그 사람은 이제 그 옛 계명에 의하여 진멸당한다. 사울을 최종적으로 신속하게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사무엘의 역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였다. 사울은 이 타협될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다윗을 비추는 하나님의 얼굴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5. 좌절과 두려움 속에서 먹은 마지막 만찬(28:20-25)

1. 내용

거짓 사무엘의 속임수에 속은 사울의 반응은 절망과 좌절, 그리고 기진함이었다. 게다가 만약 사울이 전투 때마다 금식하는 전통이 있었다면(14:24), 육신적 쇠약함과 정신적 붕괴가 겹친 것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사울은 그 전통을 깨트리지 않으려고 음식을 권하는 것을 거절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 사울은 엔돌의 신접한 자와 부하들의 권고를 따라서 음식을 먹게 된다. 이 마지막 만찬은 그의 생애에서 가장 쓴 것이었을 것이다. 이 여인은 그 어느누구도 사울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상황에서 그에게 최후적인 임금 대접을 해주는 것 같다. 사울은 그 음식으로 충분한 에너지를 얻고서 그의 죽음을 향하여 걸어 나갔다(25).

2. 마지막 만찬의 의미

이 장면은 애뜻한 감상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이 장면은 우리들의 해석을 그릇되게 이끌 수 있다. 귀신을 불러내는 사항은 종교적인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신학적인 해석은 착실한 훈련을 고수함으로써 그와 같은 매력을 거부한다. 사울이 고개를 돌려야 했던 대상은 하나님과 사무엘이었다.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이 결코 조롱당하지 않는 맥락에서 왕권으로의 소명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였다. 우리는 사울이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던 그 단 하나의 목소리를 따르기가 얼마나 힘들고, (따르지 않음으로써) 위험스러운가를 반성하고 있다.

교훈

- 1)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였다. 이것은, 처음에 그의 신앙이 어긋난 것이 결국 절망적인 상황으로 내몰려진 결과이다.
- 2) 하나님이 침묵하신 이유는 이미 그 뜻을 수차례 알렸고, 또 우리의 지식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삼킨 것이 문제이다.
- 3) 사울과 다윗은 둘 다 극단적 위기 상황에서 엉뚱한 행동을 취했다. 다만 다윗은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확신하고 결행했다면, 사울은 확신도 없이 자신을 내 던지듯 결행했다.
- 4) 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명확하게 행사하시는 분이시다.
- 5)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사람이 너무 처량하게 보이면, 때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원망할 수 있다.

6. 오늘 문제 해결

1. 사건의 사실성에 대한 관심

여기 나타난 사무엘이라는 존재와 그의 말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가?

1) 진실이다.

우선 여기에 나타난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진정한 사무엘이며 따라서 그의 말이 진실하다고 판단하는 이유로 소개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① 가장 먼저 성경의 묘사 자체가 끝까지 이 인물을 사무엘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칭 사무엘’이라든지 혹은 더 정확하게 ‘이 사무엘로 나타났으나 실제로 귀신’이라고 설명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② 또 사울이 그를 사무엘로 알았고 대화를 했다는 것이다. ③ 그 다음으로 이 인물의 말이 실제 거짓된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16-19절까지 그가 진술한 내용은 앞에서 나온 내용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④ 또 이런 설명은 성경 외적이며 다른 종교에서 나타나는 경험적인 증거들과 일치한다는 주장을 한다. 실제 이런 습관은 여러 종교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2) 거짓이다.

그러나 이런 판단에는 이 사건 자체 속에서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지 모르지만, 이 본문 밖의 성경 전체와 관련해서 답변해야 할 수많은 신학적 문제를 만들어낸다. 대표적인 문제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먼저 하나님의 종의 영이 신성한 자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 있느냐는 어려운 문제에 답해야 한다(28:15). ② 그리고 사울이 이 인물을 정확히 본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영의 눈으로) 보았다고 하는 사람을 바로 사무엘로 믿었다는 점이다(28:13-14). ③ 그리고 내일 사울이 죽게 된다는 것을 “**나와 함께 있으리라**”로 표현한 점이다(28:19). 사람의 죽고 나면 선악간의 행위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있다는 것은 성경의 세계관과 상이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의 사무엘은 사무엘로 표현된 귀신일 뿐이라는 것이다.

3) 결론

이런 사실성의 문제에 대해서 후자의 견해가 훨씬 설득력이 있고 성경 전체 가운데 이 본문을 읽을 때 합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① 우선 전자의 주장 가운데 사무엘로 표현된 것에 대해 성경은 현대적이고 과학적인 묘사를 하지 않는다. 고로 ‘사무엘’로 표현된 것이 진짜 사무엘일 수도 있지만,

‘자칭 사무엘’일 수도 있기에 첫 번째 이유는 설득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② 사울이 사무엘로 알고 대화한 것은 이 사무엘을 직접 본 것이 아니라 신접한 자가 보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인 것이다. 아마도 신접한 자의 목소리가 변조되어서 사무엘의 생전의 목소리로 표현되었을 것이다. 설령 사무엘의 얼굴이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사무엘인지 아닌지는 그 자체로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③ 또 이 인물이 증언한 내용이 앞에서 나온 내용과 일치된다고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것은 이 등장한 인물이 하는 말의 목적이다. 그것은 사울이 철저히 절망하도록 하여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고 죽도록 만드는 것이다. 만약에 실제 사무엘이라면 이런 절망스럽고 저주스러운 말을 할 수 있을까? 오히려 그가 신접한 자를 멸하라는 명백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에 대해 책망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렇게 나타난 사무엘은 자신이 이렇게 나타난 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이 되므로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④ 전자의 해석이 사실상 가장 강력한 증거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성경외적인 것으로, 이것이 어디서나 나타나며 한국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종교적인 현상이라는 것이다. 이 종교적인 현상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은 죽은 자의 영혼을 빙자해서 영매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종교 일반의 현상에 대해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속임수라고 규정한다. 죽은 자가 세상의 일에 관심을 가져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성경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 행한 행위대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서 심판을 기다릴 뿐이다. 오히려 인간을 괴롭히는 초월적인 존재에 대해서 귀신으로 설명할 뿐이지 귀신 자체가 죽은 자의 영으로 표현되지는 않는다.

특히 복음서에서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초자연적인 존재를 쫓아내실 때 죽은 자의 영으로 표현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일반종교에서 죽은 자의 영혼이 나타나는 것으로 표현한다든지, 그 매체가 된 사람의 입으로 죽은 자의 영혼이라고 표현된 것은, 사탄과 그 졸개인 타락한 천사인 귀신들이 이 세상에서 자기 존재를 숨기는 위장전술에 속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문의 사무엘은 ‘자칭’ 사무엘이며, ‘사무엘로 가장한 귀신’일 뿐이다. 그러나 정작 고대인의 관심은 그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사건이 전체 맥락에서 가지는 기능일 것이고, 따라서 우리 현대인도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2. 사건의 기능성에 대한 관심

1) 전체 속에서 기능

그것은 앞에 나오는 대응되는 본문, 즉 다윗이 적진에 들어간 사건에서 다윗이 한 행동과 완벽한 대조를 이룬다. 거기서 다윗은 철저히 아기스를 속일 수 있었다. 그 속에서 대담하게 영역을 확장하는 일을 하면서 동시에 그 영역이 유다 남방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자신의 연고지인 유다와 적이 되었음을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전략을 구사했고 이것이 먹혀들었다. 그런데 사울은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게 자신의 존재를 속이고서 들어갔으나 금방 정체가 발각되었다. 귀신의 영이 그것을 모를 리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는 그 영이 정반대로 사울을 속이는 전략을 구사한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할 수 있는 거짓 영이 이제 사무엘로 나타나서(적어도 목소리를 통해서) 사울을 책망한 것이다.

2) 사울을 책망하는 이유

그것은 사울이 최종적으로 여호와께 대한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한 채 죽도록 만들기 위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27장에서 보는 다윗에게 나타난 결과와는 정반대의 것이다. 27장의 사건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더 깊이 체험했을 것이다. 드디어 이런 경험을 통하여 29-30장에서 블레셋의 신복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하는 긴장 속에서도 기다림으로써 하나님의 구출하심을 체험하였고, 자신의 신복들이 돌을 들어 자신을 치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을 의뢰하여 최대의 위기를 탈출하는 체험을 하였다(30:6). 이것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27장: 대적을 속이는 다윗 → 계속해서 대적 속임 →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얻음
28장: 대적을 속이는 사울 → 발각되어 오히려 속임당함 → 하나님께 절망/자살함

이 모든 것은 전체 사건의 맥락 중에서 이제 정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극적으로 드러내고 묘사하는데 중요한 전략인 것이다.